

앞으로 이 길의 발걸음

-구제한줄기로 가득찬 교회의 모습을 목표로 재출발을-

(질문) 먼저 표통령으로서 지금 생각하시는 바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길에서도 감로대의 마디나 진주님의 신상 등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은 아버지신님의 섭리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 마디를 넘기 위해, 마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를 되돌아보고 단단히 확인해서, 반성해야 할 점은 반성하여, 그리고 재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나 개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틀림없다고 믿었던 발걸음이 과연 옳았는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이 길의 모습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재출발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을 구제하는 거야.’라고 일러주신 교조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제한줄기의 길이야말로 우리들이 내딛어야 할 발걸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에서는 구제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구제의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제를 실천할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괴로운 신상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15년 후에 맞이할 교조님 150년제라는 시순에 각자 지향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구제를 기축(基軸)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질문) 15년 후라고 하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15년 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보다는 각자가 맡고 있는 교회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15년

후에는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보며, 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15년 동안 착실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년 후의 목표를 가족을 비롯하여 교회에 이어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목표를 지향하며 용솨음치는 마음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장인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조님의 연제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조님께서서는 1887년 현신을 감추시며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교조님께서서는 구제한줄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등을 언제나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887년의 마디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연제의 시순에 교조님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교회에는 교회장 이취임이나 기념제 등 여러 가지 마디가 있습니다만, 교조님의 연제만은 전교의 공통된 시순이며, 같은 시순의 바람을 받아 서로 격려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소중한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재출발에 있어서 '구제한줄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표통령님께서서는 올해 1월에 직속교회장과 교구장에 대해

하나, 구제를 바라는 사람을 직시한 구제활동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
- 히노끼심 정신으로 남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

하나, 가르침의 습득

하나,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육성

이라는 세 가지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교조님 150년제를 지향할 것을 말씀드렸습디만, 그에 앞서 앞으로 5년 후에 교조님 140년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년 후에는 교조님 140년제를 향한 3년천일의 연제활동이 시작됩니다. 연제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2년 동안, 모든 교회가 15년 후의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구상하고, 구제의 실천을 기축으로 삼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교회장과 함께 세 가지 방침을 공유하며 각 교회, 각 교회장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세 가지 방침 가운데 첫 번째인 '구제를 바라는 사람을 직시한 구제활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중요한 활동으로서 가르쳐 주신 '근행'과 '수훈'은, 구제의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충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구제의 현 상황을 살펴 볼 때, 그 대상은 교회에 이어진 용재나 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구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마주하며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길을 신앙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더 넓은 사회로 눈을 돌려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길에서의 미신앙자들에 대한 구제는, 저조한 상태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교 이래 지금까지 이 길은,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에 당당하게 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구제를 바라는 사람을 직시한 구제’를 명확히 의식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방침 속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과 ‘히노끼성 정신으로 남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이라는 두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입니까?

이 두 가지 항목은 어디까지나 구제의 출발점, 즉 구제해야 할 사람과의 접점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는 과거와 비교해 생활수준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으며, 그에 따라 생활방식에 대한 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료나 사회보장제도도 충실해져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천리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종교 이외에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습니다.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서로 연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므로 우리들도 그런 기관들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나 사회제도가 발달되어도, 신상이나 사정으로 괴로워하며,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교회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란 신상이나 사정은 물론,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 곤란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주위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즘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봉사활동이나 복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구제활동에 이 길의 교회장이나 용재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이 길의 구제나 히노끼성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념적인 차이에 사로잡혀, 사회의 구제활동에 이 길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사실입니다.

(질문)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이 길은 복지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구제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제할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복지활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본래 해야 할 활동이나 구제장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든지, 뒤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구제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신님의 수호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므로, 이 점은 오해가 없도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근행’과 ‘수훈’, 또 ‘이야기 한줄기’로 가르침을 전하고, 아버지신님의 수호를 기원드리며, 구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제이므로, 오해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할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호별방문을 하거나 노방강연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천방법에 더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제의 접점을 구하며, 구제의 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항목인 ‘히노끼싱 정신으로 남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교회주변이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교회관계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보호관찰위원이나 교회사(敎誨師)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내에는 많이 계십니다.

“천리교교전”에 ‘히노끼싱은 신앙에 불타는 기쁨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그 모습은 천태만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히노끼싱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 길의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히노끼싱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히노끼싱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문제해결에 이 길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히노끼싱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감으로써, 구제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 ‘히노끼싱 정신으로 남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통해서 교회활동을 추진해 갈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이 길의 ‘구제’, ‘히노끼싱’은 세상에서 본다면 복지활동이나 봉사활동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 항목은 점점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로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어떤 구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구제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구제를 바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천리교교회본부 포교부에 구제의 접점, 구제의 출발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이나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또한 여러 형식으로 구제를 전개하고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행정기관에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해 줄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회나 여러 NPO 법인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창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기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보나 목소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서, 행정기관에 협력할 의사를 밝히고, 지역 사람들의 신용도 얻어 구제활동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각 교회가 구제활동을 할 사람을 수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접점을 구하자는 것이군요.

이 길에는 오늘날까지 쌓아온 훌륭한 토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노끼싱의 태도’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 세간에서 ‘재해구원히노끼싱대’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역시 교조님의 가르침, 구제의 토대, 히노끼싱의 토대가 있었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아야 하며, 각 교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제활동을 생각해서, 주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이 길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가 단단히 인식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눈을 돌리고, 교회가 구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활동해 나가자는 것이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길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구제에 임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천리교는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여서 친절하게 돌봐준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을 다해 준다.’, ‘천리교하면 히노끼싱’이라는 말들을 지금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해마다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제활동이 줄어드는 것과 구제에 용솨음치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젊은 사람들의 신앙심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서 구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히노끼싱에 용솨음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고 자라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방침인 ‘가르침의 습득’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우선 구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판단기준, 전해야 할 내용은 역시 교리이며 교조님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절대 틀림이 없는 교조님의 가르침과 모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벽에 부닥쳐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길의 제일 큰 강점입니다.

또한 교리와 모본에 의거한 기축이 든든하기 때문에 잘못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선 교회장 스스로가 익혀서 나날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 교조님 재세 시에 있었다면’이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시고 교조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며, 자신에게 필요한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신님이시며, 아버지신님의 섭리가 있어야 비로소 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제는 아버지신님께서 활동해 주시지 않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신님께서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섭리해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수호가 아니라 마음 그대로의 수호인 것입니다.

아버지신님께서 활동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나날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분간해서, 수호를 받아야 비로소 교회가 빛을 내고 활기에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연수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며, 젊었을 때의 생각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종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과신에 젖어, 가르침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신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낮은 마음과 자세로, 자기 자신을 엄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리를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확대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교회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항목인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육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이전과 비교하면 교회장님들도 교리를 전할 기회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수훈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나 신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이해 정도나 신앙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는 없는지? 리(理)를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교회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한

노력과 공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태도로써, 전하려는 노력과 공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세 번째 항목인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육성'의 의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육성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더욱 신중하게, 더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성을 다해 육성하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용재와 신자들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육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용재와 신자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교회 내에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월차제에는 아무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는 신자 분도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그러한 신자들이 참배하기 쉬운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가르침을 조금씩 접하는 가운데 차츰 신앙심을 키워가서, 신앙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된 다음에 근행봉사자의 역할을 맡기면 되는데, 처음부터 근행봉사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육성이란 이러해야 한다거나, 용재의 육성은 이러해야 한다는 등 틀에 얽매이게 되면 상대의 마음성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또는 입신 동기나 현재의 상황, 그리고 교회에서의 거리 등, 상황은 모두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자세로 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가 생기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주거지 이동이 빈번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용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는 편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세심하게 자주 연락을 하며, 또 직접 찾아가 정성을 다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도 이 길의 교회가 있을 것이므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방법도 공리하면서 신님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육성에 있어서 다른 유의 사항은 없습니까?

구제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활동이 지향하는 점과 이 길의 구제의 지향점은 명백히 다릅니다.

복지활동은 당면한 곤란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나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구제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곤란, 고통, 어려움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버이신님의 인도를 깨달아. 마음에 쌓인 티끌을 털어 마음을 구제받으며, 나아가 그 깊은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인연을 자각하고 인연납소를 실천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자녀나 손자들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며 힘쓰는 것이 이 길의 구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므로, 구제하는 사람이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석일조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연수를 걸친 오랜 정성이 필요합니다.

교조님께서서는 입으로 붓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본이므로, 구제하려는 상대방을 잘 살펴보고, 구제할 기회를 잘 판단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질문) 구제를 통해 마음이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르침을 단단히 마음에 다스리고,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육성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장들이 마음에 새겨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터전에 마음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교회장이라는 입장과 역할에서 단단히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용재나 신자와 교회장과는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장이 터전에 마음을 잇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재와 신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 터전의 리를 받고, 수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장은 터전의 리를 이어주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장의 큰 역할입니다. 따라서 교회장은 터전에 진실한 마음을 다하고 나르며, 이바지하려는 정신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점을 교회장님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각 계통 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말씀에

본부라는 리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의 리도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숨과 같은 것. 이 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늘이 섭리할 수 없다. (1906. 12. 13)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터전과 교회가 같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며, 터전과 교회가 같은 호흡으로 활동한다면 어버이신님께서서는 반드시 활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활동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많은 수호를 받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요점이므로 교회장님들은 단단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교회를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가 15년 후에는 그 지역에서 빛나는 훌륭한 구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여, 힘껏 용솨음치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